

2018 대학수능 내달 24일부터 원서접수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9월8일까지로 성적은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생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도교육감 지정 시험지구에서 각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료, 신분증 등을 챙겨야 한다.

◇올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로...EBS 연계율 70%

올해 수능에선 영어 영역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표준점수·백분위 없이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등급이 매겨지는 방식이다.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89점 2등급, 70~79점 3등급 등 9개 등급(10점 간격)으로 나뉘고 성적도 등급만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영어영역은 영어I, 영어II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45문항이 출제된다.

수능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춘 문제가 나오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완리 활용, 지문·그림·도표 등 자료 활용, 핵심 제재·논리 활용, 문항 변형 및 재구성 등으로 연계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변별보다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평가원의 목표다.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제가 제공되지 않는다.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직업탐구를 제외하면 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씩 선택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가운데 1개 과목 시험을 볼 수 있다.

영어영역 등급만 공개...한국사 미응시엔 무효 응시수수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까지 면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까지 수능응시료 면제

수능 응시료(6개 영역 4만7000원) 면제 대상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 접수시 응시료를 내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접수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체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환불신청기간(11월20일~24일) 환불을 신청하면 응시료의 8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는 재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라면 원서 접수 기관에서

받게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폰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메일 성적통지표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장애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종종 시각장애 수험생에겐 1.7배, 경중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 더 주어진다. 중중 시각장애 수험생은 음성평가 자료로 화면 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이나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뉴스시스



보랏빛 아름다운 순비기꽃 정맛비가 그친 8일 오후 경남 남해군 교현면 한 도로가에는 보랏빛 예쁜 순비기나무꽃이 활짝 피어 나비를 유혹하고 있다.

응급실 출입 12월부터 보호자 1명만 허용된다

앞으로 응급실에는 환자당 1명만 보호자로 출입이 허용된다. 허가받은 보호자는 출입증을 상시 착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응급실내 감염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3일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는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이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2개), 지역응급의료기관(263개) 등 414개 응급실은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소아, 장애인, 주취자나 정

신질환자 등과 같이 보호자의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보호자의 출입을 최대 2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출입이 허가된 보호자에 대해 출입증을 교부하고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응급실 출입관리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75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의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료 대기시간이 긴 대형병원 151개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환자 5% 초과 응급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20개로, 열 중 한곳이 문제다. 복지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도 단일 부과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3단계 차등 부과로 전환됐다.

위반행위 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구급차·구급헬기 운용연한 위반 등을 포함해 13개로 늘고, 특히 지정기준·응급실운영위반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등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파키스탄 피자가게, 로봇 웨이트리스로 '대박'

파키스탄에서 로봇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는 피자 가게가 손님들 끌어들여 대박을 거두고 있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답게 로봇 역시 스키트를 두르도록 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물탄에서 '피자 닷컴'을 운영하는 아지즈 자프리는 지난 2월 로봇 웨이트리스를 음식점에 데려온 뒤 수익이 엄청 뛰었다.

자프리의 아들이자 엔지니어인 오사마가 로봇 웨이트리스를 만들었다. 로봇들은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

25kg 정도의 이 로봇들은 긴 차마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을 하고 있다. 보수적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목에는 두건도 붙였다.

오사마는 로봇 웨이트리스를 도입한 뒤 음식점 수익이 2배나 늘어났다고 기뻐했다. 아지즈는 로봇 3개를 더 보유하고 있다며 새 점포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아지즈는 "원래는 피자를 팔았지만 이제는 음식점 주인들이 우리 가족에게서 로봇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의 네티즌들은 "로봇 웨이트리스들도 이슬람 여성들처럼 전신을 가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규슈 폭우로 사망 23명 실종 30여명

일본 남서부 규슈(九州) 북부에 지난 5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종자도 3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후쿠오카(福岡) 현과 오이타(大分)현에서 이날까지 숨진 사람이 18명에 이르렀고 지쿠고(筑後) 강 하류 해안에서는 남부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 시신은 수해지역에서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 온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후쿠오카 현에서만 28명이 연락 닿지 않고 있고 오이타 현을 합치면 그 수가 30명을 넘고 있다.

오이타 현에서는 정대비로 도로 등이 끊기면서 여전히 220명이 고립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행방불명자에 대해선 폭우 피해가 잇따른 5일 오후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72시간을 이미 경과한 만큼 사망 확률이 높지만 일본 당국은 경찰과 자위대 등을 동원해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 펴고 있다.

다만 규슈 북부에는 9일 다시 발달한 비구름이 몰려와 간헐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다.

구마모토(熊本)현 구마(球磨) 마을에는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54mm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토사 사태와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며 엄중 경계할 것을 주민에 당부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임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인명피해 상황을 발표하고 수해지를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바로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알류산 보고슬로프 화산 분출

북태평양 알류산 열도에 위치한 보고슬로프 화산이 8일(현지시간) 분화했다고 미국 알래스카 화산관측소가 밝혔다.

화산관측소는 보고슬로프 화산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폭발해 항공안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보고슬로프 화산은 이번에 분출하면서 화산재 구름을 해발 9km까지 뿜어 올렸다고 화산관측소는 설명했다.

화산재 구름이 대단히 높은 고도까지 치솟음에 따라 최고 수준인 적색 경보를 내렸다고 한다.

보고슬로프 화산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래 간헐적으로 분출이 계속하고 있다. 지난 5월28일에도 보고슬로프 화산은 화산재를 10.668km 상공까지 뿜어냈다. 화산재는 항공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알래스카 주 일대에서 화산이 폭발, 화산재가 6096m 이상 치솟으면 북미와 아시아 간 주요 항공로인 알류산 루트를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큰 위협을 준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